인삼류 일본 시장동향 분석

오사카aT센터 단신 31호 (2014. 9. 30)

일본 생산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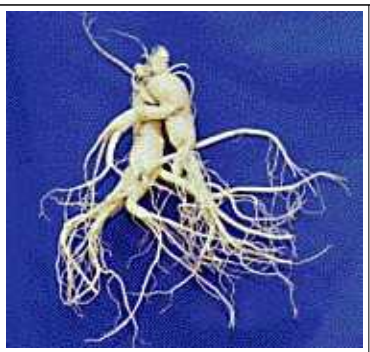
● 일본은 약용인삼으로 연간 90톤 생산

- 일본 인삼류 생산은 일본 고유종인 치크세츠인삼(라크세츠인삼;竹節人参)이 자연 서식하고 있음
- 한국 인삼은 에도시대 닛코지방(도치기현)에서 오타네인삼(御種人蔘)으로 재배되기 시작하였으며, '고려인삼(高麗人参)'으로 불려지고 있음

<치크세츠인삼>

- 현재 연간 90톤 생산되며, 주 생산지는 나가노현(70%), 후쿠시마현(20%), 시마네현(8%) 등에서 약용인삼으로 생산되고 있음
  - 나가노현 도신지방(東信地方), 후쿠시마현 아이즈(会津), 시마네현 마츠에시 다이콩시마(松江市 大根島)가 최대 산지
- 인삼의 약용 목적 사용을 위해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식물공장 재배를 준비하고 있음

<일본 인삼 생산 현황>

		
일본 산지 전경	일본 생산 인삼	식물공장 인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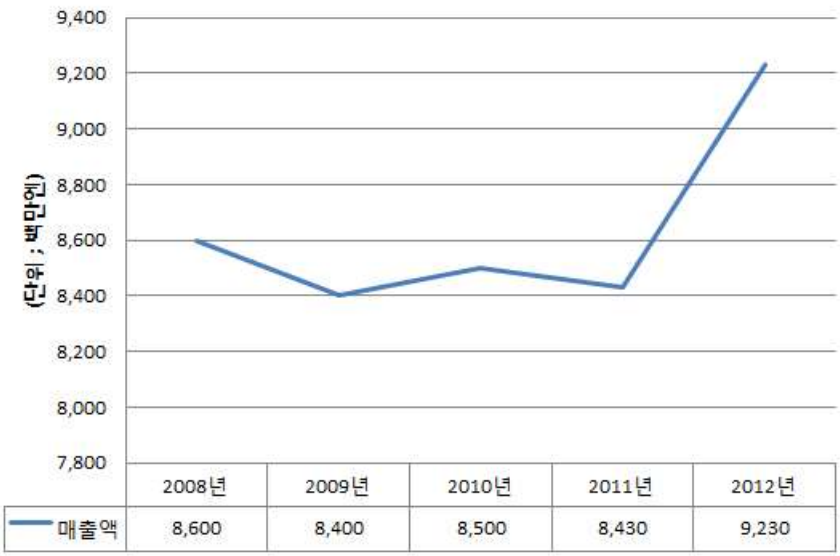
※ 출처 : 일본 시마네현 마츠에관광협회 홈페이지. Agri Wave (주) 참조

일본 인삼류 시장동향

인삼 건강식품 시장 규모 92억 3천만엔

- ‘12년 기준 일본 기능성식품 시장은 1조 8,000억엔 규모를 보이고 있음
  - 특정보건용식품 6,120억엔(34%), 영양기능식품 1,980억엔(11%), 서플리먼트 6,840억엔(38%), 기능성음료 3,060억엔(17%)
- ‘12년 건강식품 시장규모는 전년대비 0.5% 증가한 7,091억엔[1] 시장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그 중 <u>인삼류 건강식품 시장은 92억 3천만엔</u> 규모를 차지하고 있음
  - ‘96년 한국 인삼유통의 전매제 폐지로 홍삼류 유통이 증가하였으며, 통신판매와 일본 대기업 인삼시장 참여 등으로 일본 건강식품 시장에서 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일본 인삼 건강식품 시장추이>



※ 출처 : 야노경제연구소

1) 주요 건강식품 시장규모 : 녹즙 52,930백만엔, 콜라겐 51,700백만엔, 글루타민산 46,400백만엔, 비타민C 37,500백만엔, 프로틴 35,500백만엔, 흑초•향초 33,400백만엔, 블루베리 24,900백만엔, 효소 24,800백만엔, 곤약 22,750백만엔, 우곤 22,000백만엔, 히알루론산 19,600백만엔, 클로레라 19,300백만엔, DHA•EPA 18,630백만엔, 꿀 17,000백만엔, 자두 13,820백만엔, 프로폴리스 11,300백만엔, 유산균 9,200백만엔 등(출처 : 야노경제연구소)

인삼 유통현황

- 인삼 효능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높아 분말, 엑기스로 가공되어 건강식품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수삼은 인삼주용, 일부 고급 일본식당에서 튀김 식재료로 소비되고 있음
  - 인삼 가공품은 백삼류 중심으로 중장년층 자양강장, 피로회복 건강음료로 소비가 많았으나, 1996년 한국 인삼 전매제 폐지를 계기로 홍삼을 사용한 가공품 소비가 증가
  - 인삼 건강제품 구입 동기는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혈압, 당뇨병, 체질개선 등의 효능으로 구입하고 있으며, 최근, 미용에 관심이 많은 여성고객층의 소비가 확대되고 있음

<인삼제품 구입동기>

건강을 위해	협압	당뇨병	혈압	체질개선	기타
20	11	11	9	7	44

※ 출처 : 독립행정법인 국민생활센터 2001년 4월 ~ 2006년 11월에 걸쳐 POI-NET(전국 소비생활정보 네트워크 시스템)에 의한 인삼 건강식품에 관한 조사로 총 71건에 대해 인삼제품 구입동기 조사(복수응답 가능)

<인삼 유통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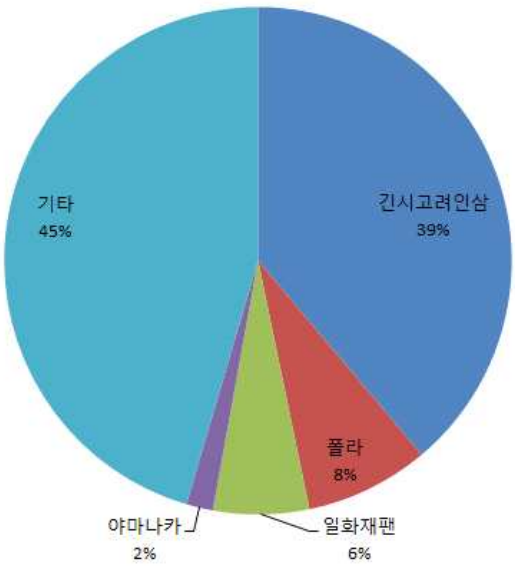
구분	이미지	유통현황
수삼		- 원산지 : 일본 나가노현 신슈(信州)산 - 제품형태 : 신선 - 가격 : 3,600엔/100g(5년근), 4,900엔/150g(6년근), 7,000엔/200g(6년근), 8,700엔/250g(6년근)
		- 원산지 : 한국 - 제품형태 : 진공포장(냉동) - 가격 : 2,000엔/100g(4년근), 9,000엔/500g(4년근), 25,000엔/500g*2(4년근)
건조		- 원산지 : 일본산(나가노현) - 제품형태 : 홍삼 - 가격 : 4,500엔/100g(4~5년근), 13,500엔/300g(4~5년근), 21,600엔/500g(4~5년근)
		- 원산지 : 한국 - 제품형태 : 홍삼 - 가격 : 4,900엔/100g(5~6년근), 14,700엔/300g()5~6년근), 22,500엔/500g(5~6년근)

		- 원산지 : 중국산(동북) - 제품형태 : 홍삼 - 가격 : 12,600엔/500g(4년근), 14,700엔/500g(5~6년근)
		- 원산지 : 중국산(동북) - 제품형태 : 백삼 - 가격 : 15,120엔/500g(5~6년근)
분말		- 원산지 : 중국산(동북) - 제품형태 : 백삼분말 - 가격 : 3,150엔/100g, 5,500엔/200g
		- 원산지 : 중국산(동북) - 제품형태 ; 홍삼분말 - 가격 : 8,400엔/200g(5~6년근), 10,500엔/280g(5~6년근)
		- 원산지 : 일본산(시마네현) - 제품형태 : 인삼분말 - 가격 : 3,500엔/30g(6년근)
		- 원산지 : 중국산(동북) - 제품형태 : 정제 - 가격 : 3,500~6,200엔/100g~170g(6년근)
농축액		- 원산지 : 한국산(정관장) - 제품형태 : 농축액 - 가격 : 23,399엔/100g(6년근)
		- 원산지 : 일본산(시마네현) - 제품형태 : 농축액 - 가격 : 5,000엔/45g(6년근)
차류		- 원산지 : 한국산(정관장) - 제품형태 : 차류 - 가격 : 9,505엔/3g*50포
		- 원산지 : 중국산(동북) - 제품형태 : 차류 - 가격 : 864엔/2g*10팩
		- 원산지 : 일본산 - 제품형태 : 차류 - 가격 : 19,900엔/2g*180포(5년근)

※ 출처 : Taiseisya((http://www.taiseisya.net/products/list.php?category_id=44),
JA쿠니비키(http://www.ja-kunibiki.or.jp/pwm/product-ninjin.html),
Womancom(http://www.womancom.co.jp/goods_005.html),
한국인삼공사재팬 참조

- 인삼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보조식품업계 '12년도 매출총계는 78억 6천만엔이며, 취급업체 중 김씨고려인삼(金氏高麗人参)이 39%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음

<'12년도 일본 인삼제품 판매 업체 시장점유율>



※ 출처 : 야노경제연구소

  - 김씨고려인삼은 '신비의 건강력'을 주력으로 TV홈쇼핑, 신문, 인터넷 등을 중심으로 신규고객 확보를 위한 광고투자를 강화하며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13년부터 원료 판매도 실시하고 있음
  - 폴라는 '건미삼천(健美三泉)'을 주력으로 '13년 리뉴얼 상품을 출시하는 등 호조를 보이고 있
  - 일화재팬은 발효인삼의 OEM·ODM 사업, 통신판매·소매사업, 드럭스토아 등에의 도매납품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 일본제분그룹의 일본데일리 헬스는 2007년부터 한국 정관장(식품용) 독점판매를 하고 있으며, OEM 전개를 통해 남성용 자양강장, 여성용 차류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 데이네이 통판은 한국 풍기인삼 100%를 사용한 '고려미인', 교화는 '고려인삼정 5000'을 중심으로 여성 고객층을 대상으로 판매를 하고 있음

<인삼 건강보조식품>

제품명: 신비의건강력 제조자: 긴시고려인삼 가격: 7,560엔/90정	제품명: 건미삼천 제조사: 폴라 가격: 8,424엔/60정	제품명: 고려미인 제조사: 데니네이통판 가격: 2,940엔/62정	제품명: 고려인삼정 제조사: 교화 가격: 3,333엔/120정

- 인삼제품 판매 채널은 대부분 통신판매가 대부분이며, 의약품용 인삼 건강음료는 드럭스토아, 건강 차류는 일부 식품슈퍼에서 판매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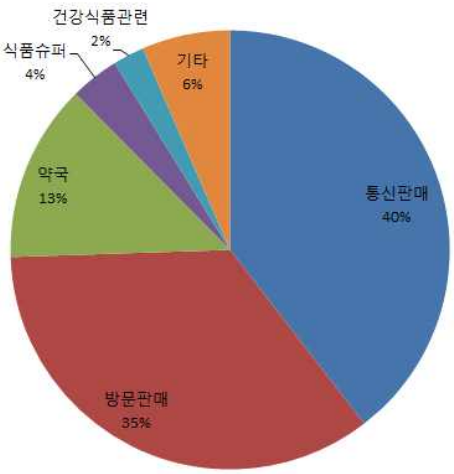
<인삼 건강보조식품>

건강식품(통신판매)	건강음료(드럭스토아)	점포판매(식품슈퍼)

◆ (참고) 건강식품 채널별 판매 현황

- '12년도 일본 건강식품의 채널별 판매는 통신판매가 전체 판매시장의 39.5%인 2,800억엔(전년대비 1.6% 증가), 방문판매가 34.9%인 2,478억엔(동 1.7% 감소)으로 무점포 판매가 총 채널별 판매의 74.4%를 차지함
  - 점포판매는 전년대비 1.0% 증가한 1,351억엔으로 전체 건강식품 시장 규모의 19%를 차지하고 있음

<'12년도 건강식품 유통채널별 현황>



※ 출처 : 야노경제연구소

수입 인삼류 현황

- '13년 물량기준 일본의 신선, 건조 및 분말 인삼류 수입은 642톤으로 전년대비 26%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수입산 중 중국산이 98.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13년 신선, 건조 및 분말 인삼류 금액기준 수입은 40억엔이며 한국산이 1억엔으로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산이 38억엔으로 95%를 점유

- 수입 인삼음료 원료는 2,280억엔 규모로 한국산이 전년대비 3.2% 성장을 보이며 수입산의 89%를 차지하고 있음

<일본 인삼류 수입현황>

(단위 : 톤, 백만엔)

국가	2009		2010		2011		2012		2013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신선,건조, 분말 계	662	1,359	916	1,851	584	1,808	863	4,422	642	4,055
한국	7	90	3	18	8	84	11	169	7	101
중국	654	1,213	912	1,767	573	1,688	850	4,221	633	3,881
대만	1	56	1	65	1	32	1	27	2	68
미국	-	-	-	-	2	4	1	5	1	5
캐나다	-	-	-	-	-	-	-	-		1
음료원료 계	21,920	10,2005	52,665	188,595	57,421	158,339	49,527	205,811	60,513	228,075
한국	21,492	10,0403	44,380	182,110	40,184	145,370	41,389	197,376	42,354	203,859
중국	50	690	25	302	802	5000	200	287	7,646	13,718
스위스	378	912	772	4,219	775	449	7,938	8,148	10,513	10,498
미국	-	-	7,488	1,964	15,660	7,520	-	-	-	-

※ 출처 : 일본재무성무역통계

※ 1211.20.000 신선, 건조. 분말 / 2106.90.292 음료원료

한국산 인삼류 대일 수출동향

대일 수출동향

- 한국산 인삼류 대일 수출은 금액기준 홍콩, 중국 다음으로 '13년 현재 연간 32,335천불(물량 646톤)로 전년대비 12% 감소(물량 5.4% 감소)
- '14년 6월 현재 대일 수출은 16,372천불(물량 233톤)로 전년 동기대비 15% 증가(물량 13% 감소)를 보이고 있음
  - '14년 4월 소비세 인상을 앞두고 원료 수요가 증가하였지만, 엔저 영향 및 고가 가공품 수출증가로 대일 수출금액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물량은 감소를 보임

<대일 인삼류 수출 현황>

(단위 : 톤, 천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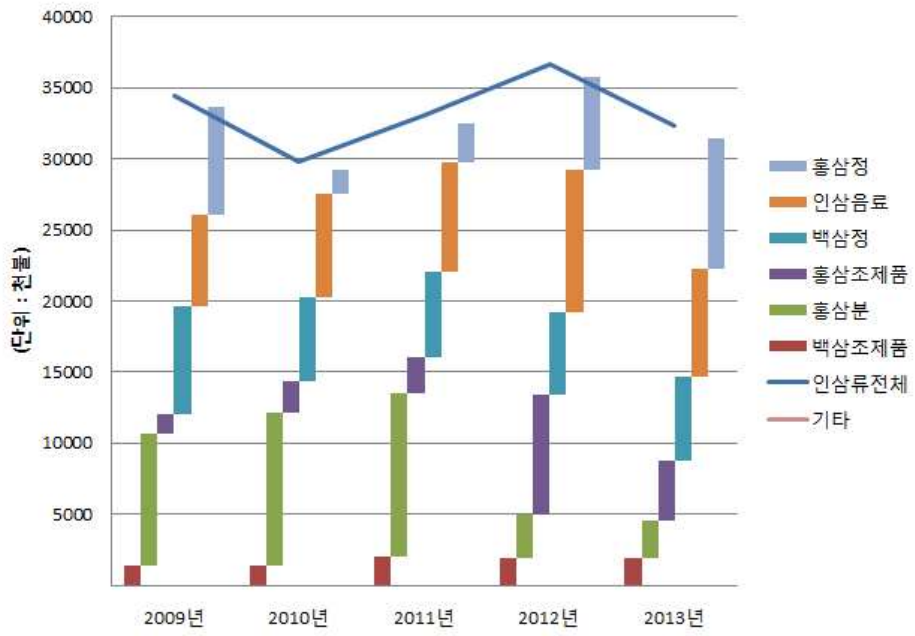
2011		2012		2013		2014년 1~6월누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증감율	금액증감율
516	33,095	683	36,644	646	32,335	233	16,372	-12.86%	15.4%

※ 출처 : Kati 무역통계

품목별 대일 수출동향

- '13년 금액기준 인삼류 수출비중이 높은 품목은 홍삼정으로 9,215천불(29%)로 가장 높으며, 인삼음료가 7,551천불(24%), 백삼정이 5,918천불(18%), 홍삼조제품이 4,224천불(13%), 홍삼분이 2,598천불(8%), 백삼조제품이 1,936천불(6%)을 차지하고 있으며,
- 전년대비 증감율이 가장높은 품목은 홍삼정이 137%, 홍삼조제품 244%로 증가세가 높으며, 반대로 감소 품목은 홍삼분이 74%, 인삼음료 25%로 각각 감소를 보이고 있음

<인삼류 주요 품목별 대일 수출동향>



※ 출처 : Kati 무역통계
※ 기타 품목은 수삼, 백삼, 백삼분, 홍삼, 인삼액즙 등

- 수출단가는 금액기준 수출비중이 높은 홍삼정이 '13년 기준 1kg 당 134불로 높으며, 인삼음료는 18불로 수출단가가 낮게 형성되어 있음
  - 수출비중이 낮은 품목 중 홍삼분이 1kg 당 152엔으로 수출단가가 높으며, 백삼조제품이 55엔으로 비교적 낮게 형성되어 있음

<인삼류 대일 수출단가 분석>

(단위 : 불/kg)

품목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3년수출비중
홍삼정	14	113	172	190	134	29%
인삼음료	20	22	24	27	18	24%
백삼정	263	283	299	339	343	18%
홍삼조제품	45	31	40	39	59	13%
홍삼분	136	164	181	260	152	8%
백삼조제품	43	82	98	77	55	6%

※ 기타 수삼 64불, 백삼 153불, 백삼분 158엔, 홍삼 465불

● 한국산 인삼류 일본시장에서의 애로사항

- 한국과 달리 인삼 활용도가 낮아 건강식품 외에는 소비가 활발하지 않고, 통신판매가 주류인 점으로 인해 식품전반에 걸쳐 시장개척을 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으며, 원료에 있어서 값싼 중국산과 북미산과의 경쟁 또한 한국산 판매확대를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음

일본 인삼류 시장 전망

【신 식품기능성 표시제도 검토관련 전망】

<신 식품기능성 표시제도 검토 중>

- 건강기능을 지닌 모든 식품에 있어서 검증된 영양기능성에 대해 일본정부에 신고 후 기능성 표시가 가능하다는 신 식품기능성 표시제도 검토 중

※ 현재 일본의 식품 건강표시는 특정보건용식품, 영양기능식품에 한해 표시를 할 수 있지만, 신 식품기능성 표시는 모든 건강식품에 해당됨

● **신 식품기능성 표시제도가 시행될 경우, 인삼의 건강기능성 성분 사용 식품이 확대될 것 예상되며, 판매기법 다양화가 예상됨**

- 인삼 건강 기능성 성분을 원료로 한 다양한 식품에 활용이 예상됨

※ ㈜데타막스는 9월 12일 건강식품사업 세미나에서 '흡수율대폭증진으로 차별화 기능성소재 『발효홍고려인삼』의 가능성'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신기능성표시제 시행을 앞두고 시장확대 예상에 따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음

- 기존 건강식품의 상위 인기상품인 녹즙, 글루코사민 등은 '천연', '자연'에서 양질의 원료를 채취하여 '안전·안심'하다는 건강스토리로서의 마케팅이 주류이지만, 신 기능성표시제도가 도입될 경우 보다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마켓팅 기법 대두 예상

● **채널별 판매에 있어서도 기존 무점포 판매가 74.4%를 차지하였지만, 향후 신 식품기능성 표시제도가 시행될 경우 점포판매 확대가 예상됨**

- '12년 현재 건강식품 시장의 19%에 해당하는 1,351억엔이 드럭스토아, 슈퍼 등에서 판매되고 있지만 향후 식품기능성표시가 시행될 경우 건강식품 점포 판매 증가 예상

※ 미국의 경우 건강기능성표시가 가능하기에 다이어트서프리먼트 판매의 65.9%가 점포에서 판매되고 있음

【식재료로서 일본 시장 전망】

<나카쇼쿠(中食)시장의 소자이 (惣菜)>

- 일본 식품시장은 고령화, 단신세대 증가 등으로 나카쇼쿠(中食) 시장확대로 인해 반조리 가공식품인 소자이(惣菜) 시장규모가 '13년 약 9조엔대로 식품시장의 12%를 차지하며 성장 지속

● **일본 식문화 트렌드 중 소자이 시장의 지속확대가 예상되며, 반조리 반찬류 소자이로서 컷트 채소, 파우치 재료 시장 성장 지속 예상**

- 컷 채소 시장은 1,900억엔, 파우치 소자이 시장은 약 2천억엔 규모로 식품슈퍼, 편의점, 외식업체 등의 나카쇼쿠 소자이로서 확대 지속

⇒ 한국 수삼의 튀김이나 샐러드, 인삼류 분말의 메뉴첨가 등의 메뉴제안을 통한 일본 소자이 시장 신규개척의 여지가 있음

시사점

- **【건강식품으로서의 인삼】 일본 신 식품기능성표시가 시행될 경우 건강식품 수요 확대가 예상되기에 한국 인삼 수출확대를 위한 노력 필요**
  - 한국 인삼 효능에 대한 정보제공과 홍보 강화 필요
  - 신 기능성표시 제도가 시행될 경우 통신판매는 물론 점포 판매도 확대될 것이 예상되기에 다양한 판매채널 개척 필요
    ⇒ 일반 소비자가 자주 들르는 드럭스토아, 편의점, 식품슈퍼 입점확대 노력 필요
  - 차류 소비가 많은 일본 소비자에게 고려인삼이 함유된 음료 상품개발을 통한 시장개척 필요

- **【식재료로서의 인삼】 식재료로서 수삼, 인삼 분말 등을 활용한 메뉴제안을 통한 수출확대**
  - 건강식으로 인지도가 높은 인삼의 튀김류, 샐러드, 분말 첨가 등의 식재료로서 활용 확대 노력을 통해 한국산 인삼류 수출확대 필요

※ 야노경제연구소, 일본재무성 무역통계, kATI무역통계 참고

[문의 : 오사카aT센터 유정열 / yjy@atcenter.or.jp]